

『承政院日記』를 통해 본 鍼灸擇日 활용 방법

¹오준호, ²차웅석, ²김남일

¹통일부 하나원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f The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y Method In Seunjeongwon-Ilgi

¹Jun-Ho Oh, ²Wung-Seok Cha, ²Nam-Il Kim

¹Ministry of Unification,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North Korean Refugees(Hanawon)

²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of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y Method (AMFDM;鍼灸擇日) shown in the Seun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rough such inquisiti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MFDM could be found.

The authors used web database of Seunjeongwon-Ilgi(承政院日記) serviced by National Institution of Korea History. We searched the database twice. First, We check up the database using key words - '忌日', '吉日', '拘忌', '鍼', '針' and '灸'. Search words is "(忌日|吉日|拘忌)&(鍼|針|灸)". Second, We check up the database using other key words - '瘟疫', '爲吉', '爲受鍼吉'.

1. AMFDM was used whenever Royal Family was cared. Furthermore, Its application method was as same as medical documents said.
2. AMFDM in the Seunjeongwon-Ilgi consists of Taboo-day(忌日) and Favor-day(吉日). Taboo-day is classified into following 5 type. Weather, Moon phases, The 24 solar terms(節氣), Spirit-location(人神), KunJie-12-deity(建除十二神) and OnHuang-day(瘟疫日).
3. Sometime contradiction was occurred when AMFDM was used. So AMFDM had the priority order. According to these's order, doctor picked up a date.
4. Doctor used AMFDM to control Interval of treatment. They thought that acupuncture treatment exhaust one's Qi(氣). Using AMFDM, they could give recovery period to patient.

Key words : Seunjeongwon-Ilgi(承政院日記), Acupuncture & Moxibustion Fix-a-date Method (AMFDM;鍼灸擇日)

I. 서론

鍼灸擇日은 침과 뜸을 시술할 때 피해야할 시간과 지향해야할 시간을 추산하는 것으로, 침구치료 과정 가운데 일부였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鍼灸擇日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서 그것의 활용 방법에 대해 잊혀지게 되었다.

경락은 인체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體外와 體內를 연결해 주고 있어 운기학과 침구학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鍼灸

擇日法이다.)

조선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鍼灸擇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鍼灸擇日編集』(1445)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통의학 역사상 유일한 鍼灸擇日 전문서로서 여러 서적에 산재되어 있던 鍼灸擇日에 관한 기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 뒤로도 『東醫寶鑑』(1610), 『鍼灸經驗方』(1644) 등 조선에서 간행된 침구학 관련 의방서에는 鍼灸擇日에 관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침구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鍼灸擇日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들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이를 위해 『承政院日記』 기사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승정원일기는 承政院의 注書가 국왕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언동 및 승정원에서 출납한 일체의 문서를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록문이다.²⁾

『承政院日記』는 현존하는 기록물 가운데 침구치료 과정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³⁾

『承政院日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Web 상의 데이터베이스(<http://sjw.history.go.kr>)를 이용하였다.

『承政院日記』는 실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鍼灸擇日法이 언급된 기사를 골라내기 위해 몇 가지 검색어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忌日’, ‘吉日’, ‘拘忌’의 세 단어이며, 이들 단어가 鍼, 針, 灸 가운데 하나와 같이 기록된 기사를 찾아내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정의된 검색 연산자를 이용해 “(忌日|吉日|拘忌)&(鍼|針|灸)”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1차 자료를 모았다.

1차 자료를 살펴본 결과, ‘瘧瘧’, ‘爲吉’, ‘爲受鍼吉’ 등의 용어가 鍼灸擇日法에서 자주 등장함을 파악하고, 이들을 검색어로 하여 다시 2차 자료를 모았다.

1, 2차 자료들 가운데 鍼灸擇日의 이유가 기사에 드러나 있는 경우를 추리고 이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본문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III. 『承政院日記』의 鍼灸擇日 기사 분석

『承政院日記』에는 鍼灸擇日法과 관련된 단어는 ‘擇日’, ‘忌日’, ‘拘忌’, ‘吉日’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擇日은 날을 고른다는 말로, 조선시대 한글로는 ‘날받이’, ‘날가림’⁴⁾ 정도로 표현되었다. 忌日은 피해야 할 날을, 拘忌는 지금의 禁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吉日은 징조가 좋은 날로 忌日과 상대되는 단어이다. 吉日에는 다시 “極吉”, “最吉”, “平吉” 등으로 나누어 경중을 표현하였다.

『承政院日記』에는 택일과 관련된 기사들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택일의 근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기사를 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당시 鍼灸擇日法의 정황을 추측이 아닌 기사 속 언급들을 통해 구체화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다.

본문의 내용이 忌日 중심으로 정리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忌日의 경우, 많은 기사에서 擇日의 의무를 지고 있는 内醫院에서 그 이유를 임금에게 아뢰고 있었다. 이에 반해, 吉日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말하는 장면이 거의 없고 모월 모일이 길하다는 임금만 있어 고찰에 학계가 있었다.

『承政院日記』 기사에 등장하는 鍼灸擇日法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1. 날씨를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

鍼灸擇日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날씨이다. 오늘날 개인의 일상이나 산업에서 날씨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아, 조선시대의 침구 시술에서도 날씨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의서에서 날씨에 대한 언급은 『鍼灸擇日編集』「明堂經候天色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는 “땀을 뜰 때에 만약 음습한 안개가 크게 일어나거나, 눈보라가 갑자기 치거나, 맹렬히 비가 내리거나 터는 듯한 덥거나, 천둥번개나 무지개가 있을 때에는 잠시 멈추었다가 청명한 때를 기다려 다시 땀을 뜯다.” (凡點灸時 若值陰霧大起 風雪忽降 猛雨炎暑 雷電虹蜺 暫時且停 候待晴明 卽再下火灸之)고 하여 괴해야 할 구체적인 기상현상으로 안개, 바람, 눈, 비, 더위, 우레와 번개, 무지개를 들고 있다.⁵⁾

『承政院日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첫째 슬기차고 흐린 날,

둘째 비나 눈이 오는날,셋째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 대한 임상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1) 습기 차고 흐린 날

- ▶ 현종 10년 1월 23일 (정사) “…… 非但日氣陰寒, 有妨受鍼, 且是下弦之日 ……”
- ▶ 숙종 28년 5월 27일 (무신) “藥房啓曰 …… 而日氣陰濕之時, 不得施鍼, 乃是醫家拘忌云, 今日受鍼, 似當姑爲停止, 故敢稟. 傳曰, 依爲之”
- ▶ 숙종 29년 2월 4일 (기묘) “諸御醫等皆以爲, 似此陰濕之日, 例爲鍼灸家拘忌, 今日受灸, 姑爲停止, 宜當云”
- ▶ 경종 4년 운4월 18일 (신묘) “受鍼則今日日氣陰濕, 姑爲停止, 二十二日爲吉, 以此日, 更爲受鍼, 宜當云.”

2) 비나 눈이 오는 날

- ▶ 현종 원년 9월 26일 (무인) “今日別無大段拘忌, 而針灸不用陰雨之日”
- ▶ 현종 2년 3월 16일 (을축) “昨今兩日, 以拘忌, 受鍼停止矣”
- ▶ 현종 6년 3월 26일 (임자) “雷雨大作, 天氣沈晦 …… 而非但雨勢如此, 雷電兼發, 此是鍼家大段拘忌, 今姑停止”
- ▶ 숙종 20년 1월 19일 (정사) “今日受灸始初之日, 而雨雪如此, 日氣沈陰, 人之氣候, 不爲舒暢, 故如此之日, 例爲鍼灸之拘忌”
- ▶ 영조 5년 6월 5일 (무인) “上曰, 雨勢雖如此, 拘忌不爲大段, 直爲受鍼, 可也.”

3) 바람과 추위가 심한 날

- ▶ 숙종 25년 2월 17일 (정사) “且伏聞風雪之日, 乃是醫家禁忌, 今日風勢如此, 姑爲停灸”
- ▶ 숙종 44년 4월 22일 (경자) “終日風氣甚不佳. 如此之日, 則醫書有所拘忌”
- ▶ 영조 8년 11월 10일 (계사) “日氣又值極寒, 姑爲停止”

4) 소결

매일 바뀌는 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이유로 치료를 잠시 쉬어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날씨를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습기 차고 흐린 날, 비나 눈이 오는 날, 바람이 불거나 매우 추운 날에는 침구 시술을 삼갔다. 비가 오는 날이 침구의 금기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숙종 20년 기사에서는 “비와 눈이 이와 같고 침음한 날씨는 사람의 氣候를 펼쳐지지 못하게 하니, 이런 날들은 모두 침구의 금기가 됩니다.” (雨雪如此 日氣沈陰, 人之氣候, 不爲舒暢, 故如此之日, 例爲鍼灸之拘忌)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擇日의 기준은 날씨의 정도였다. 습기가 많고 흐릴수록, 비나 눈이 많이 올수록,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울수록,

록 더욱 중대한 禁忌로 작용하였다. 특히 비와 함께 동반되는 번개와 우레는 매우 큰 금기였다. 天氣의 혼란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종 6년의 기사에는 “비의 기세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번개와 우레가 함께 치고 있으니 이것은 침구의가들이 큰 금기로 삼는 것입니다.” (非但雨勢如此, 雷電兼發, 此是鍼家大段拘忌)라고 한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람과 추위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숙종 44년 기사에서는 “의서에서 하루종일 바람이 심한 날은 금기로 삼는다.” (終日風氣甚不佳. 如此之日, 則醫書有所拘忌)고 하였고, 영조 8년 기사에서는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치료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 (日氣又值極寒, 姑爲停止)고 하였다.

셋째, 반대로 날씨가 나쁘지만 좋았다고 있거나, 그 정도가 가벼울 때에는 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숙종 20년 기사에서 숙종은 매번 금기로 인해 치료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뜰법을 시행할 것을 명하였고, 영조 5년 기사에서 영조는 날씨에 대한 금기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침 치료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날씨의 정도에 따른 개인의 인식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좋지 않은 날씨를 모두 거른다면 시술에 필요한 횟수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침구 시술이 천지의 기운과 인간의 기운을 교류하는 것인 만큼, 시술 중에 날씨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邪氣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맑은 날에 침구를 시행하라는 것이므로 습기차고 흐린 날, 비나 눈이 오는 날, 바람이 심하기 부는 날 등이 금기였다.

2.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

달의 모양에 따라 침구치료가 제약을 받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太陰曆을 사용했던 전근대시대에는 달이 차고 이지려지는 모습이 시간의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천지기운의 변화로 인식되었다.

의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東醫寶鑑鍼灸篇⁶⁾』 鍼灸忌日에는 “…… 忌弦望晦朔 …… 凶” 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鍼灸經驗方⁷⁾』의 鍼灸忌日에도 “忌弦望晦朔 …… 凶” 라고 하여 上弦과 下弦, 보름, 그믐, 초하루에는 치료를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사의 내용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晦朔日, 弦日, 望日에

침구시술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晦日은 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날로써 한 달의 마지막 날에 해당하며, 朔日은 달의 모습이 처음 드러나기 시작한 날로 매 달 첫째 날에 해당한다. 晦日과 朔日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되었다. 弦日은 달이 반쪽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晦에서 望으로 갈 때 나타나는 上弦과 望에서 晦로 갈 때 나타나는 下弦의 두 종류가 있다. 날짜로 보았을 때, 上弦은 7~8일, 下弦은 23~24일에 해당한다. 望日은 달이 완전히 차서 보름달 형상이 되었을 때로, 날짜로는 15~16일에 해당한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晦朔日

- ▶ 인조 21년 7월 28일 (기미) “明日則乃瘡瘍日, 鍼家大禁, 晦朔則雖有所忌”
- ▶ 인조 24년 11월 1일 (계묘) “且今日朔日而有拘忌, 明日受鍼, 宜當云”
- ▶ 현종 3년 1월 30일 (갑진) “今日明日, 卽晦朔, 而鍼家拘忌也.”
- ▶ 숙종 39년 3월 30일 (정미) “晦朔鍼灸有拘忌, 今日受灸, 又當停止.”
- ▶ 영조 8년 12월 26일 (기묘) “而八日則平平, 晦朔則不可爲之”

2) 弦日

- ▶ 현종 3년 7월 21일 (임진) “則今二十三日下弦, 二十四日不宜鍼刺, 二十六日入節日, 而五日, 七日, 則以入節前後日, 皆爲鍼家所忌……”
- ▶ 현종 5년 4월 23일 (을묘) “今日是下弦, 而在前受鍼時, 亦不拘忌, 今日受鍼, 何以爲之?”
- ▶ 현종 10년 1월 23일 (정사) “非但日氣陰寒, 有妨受鍼, 且是下弦之日, 從前雖有勿爲拘忌之教, 初日則不可不擇. 明日最吉云”
- ▶ 숙종 22년 2월 7일 (계사) “南九萬曰, 來日則上弦拘忌, 當於明日受灸之意, 敢達.”
- ▶ 숙종 24년 7월 8일 (경진) “今日則姑停. (缺三字)上弦拘忌, 再明日更受鍼, 宜當” (본문 중간에 세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데, 내용상 ‘明日亦’ 정도로 보임)
- ▶ 숙종 25년 2월 8일 (무신) “今日雖是上弦日, 拘忌不至大段, 不可不連爲受鍼, 何以爲之乎?”

3) 望日

- ▶ 현종 3년 1월 16일 (경인) “斗杓曰, 今日非但以節候爲忌(缺)故望日行針, 針家忌之云矣.”
- ▶ 현종 4년 10월 15일 (기유) “則十六日雖云望日, 於補爲忌, 灑則不忌”
- ▶ 현종 5년 4월 15일 (정미) “今日則不但望日, 亦有他拘忌, 不宜受鍼, 明日則無大段拘忌云, 何以爲之?”
- ▶ 현종 5년 5월 15일 (병자) “而今日乃人神遍身日, 鍼家最爲拘忌, 明日則雖望日”
- ▶ 현종 8년 11월 16일 (병진) “今日雖是望日, 別無大段拘忌”

4) 소결

달의 모양에 따른 금기는 의서에 나온 설명과 같이 晦朔日, 弦日, 望日을 拘忌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달의 모양에 따라 인체의 血氣가 함께 증감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현종 4년 기사에는 10월 16일이 望日인데, 補法에는 忌日이지만, 灑法에는 금기가 없다고 말하였다.(현종4년 10월 15일 (기유); 議諸諸針醫, 則十六日雖云望日, 於補爲忌, 灑則不忌) 이어 영조 13년 기사에서 醫官 志哲은 “의서에서 望에는 補할 수 없고, 晦에는 灑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望日에는 氣血이 충반되기 때문에 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뜰을 뜨기에는 꺼려야 하지만 침의 경우에는 꺼릴 것이 못되니 민간에서도 이 날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조 13년 5월 14일 (신축); 志哲曰, 醫書云, 望不補晦不灑, 蓋望則氣血充滿, 故不可補也。雖忌之於受灸, 而鍼則不忌, 外間亦多用此日矣)라고 하였다. 이는 달이 가득 찬 望日에는 인체의 氣血 또한 가득 차고, 달이 사라지는 晦朔日에는 인체의 氣血 역시 극도로虛해지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氣血이 가득 찬 望日에 補法인 灑法을 시행하는 것은 피해야 하나 灑法인 鍼法은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晦朔日에는 鍼法을 피해야하고 灑法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금기는 다른 拘忌와 비교하였을 때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현종 5년 기사에서는 藥房에서 먼저 오늘의 下弦이기는 하나 지난번에도 또한 忌日을 지키지 않았으나 오늘도 下弦의 금기를 지키지 말자고 아뢰었고, 숙종 25년에도 藥房에서 上弦이기는 하나 대단한 금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현종 8년에는 望日의 금기 또한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禁忌와 연이어질 경우 혹은 吉日과 겹쳤을 경우 지켜지지 않았던 예도 있었다. 인조 21년 기사에서 瘡瘍日과 연이어 지기 때문에 瘡瘍日을 피하고 晦朔日을 택하였고, 현종 5년에는 藥房에서 吉日과 겹치기 때문에 望日이라 하더라도 시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런 문제들은 다른 금기와 연이어질 경우 치료 공백이 너무 길어졌던 경우들이다. 달의 모양은 천지의 기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시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 달에 5일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기들과 연이어질 경우 가볍게 여겨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서에는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忌日 이외에 每月 6일, 16일(혹은 15일), 18일, 22일, 24일, 小盡日(짧은 달의 마지막 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날들이 왜 忌日이 되었

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날짜 들을 보면, 달의 弦望晦朔의 날짜와 상당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節氣를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

오늘날에도 절기는 계절 변화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농본사회를 주창했던 조선에서도 절기를 헤아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침구 금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하나의 절기는 시간의 끝이자 시작을 의미하며, 천지 기운 변화의 정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침구시술을 피한다.

의서에 따르면, 절기에 들어선 후 각 1일을 忌日로 삼고 있다. 『鍼灸擇日編集』 鍼灸忌日에서는 “入節前後各一日凶 素問云各五日”라고 하였고, 『東醫寶鑑』 鍼灸忌日과 『鍼灸經驗方』 鍼灸禁忌에서도 “入節前後各一日凶”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관련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사 및 분석

- ▶ 인조 4년 9월 18일 (정해) “十八日丁亥立冬, 十月節, 乃瘟瘡神, 十九日入節後一日, 亦是瘟瘡神, 二十日滿日, 男女俱忌, 俱是針家所忌, 皆難施針”
- ▶ 현종 원년 2월 19일 (갑진) “此後日子, 連有拘忌, 二十五日, 三月節也, 前後各一日, 例皆有忌”
- ▶ 현종 3년 1월 16일 (경인) “今日非但以節候爲忌(缺)故望日行針, 針家忌之云矣.”
- ▶ 현종 3년 7월 21일 (임진) “二十六日入節日, 而五日, 七日, 則以入節前後日, 皆爲針家所忌”
- ▶ 숙종 24년 7월 2일 (갑술) “今日受鍼, 雖有入節拘忌, 似不大段”
- ▶ 영조 6년 5월 23일 (경인) “聖徵曰, 不必連日受鍼, 而二十六日則入節日, 故云有拘忌矣.”

2) 소결

절기 역시 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天地氣運이 크게 바뀌는 날로 이해되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절기는 농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시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날씨나 기후변화의 근거로 종종 언급되곤 한다.

조선시대에는 절기를 기준으로 기운이 변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짜보다 절기를 우선시 하였다. 예컨대, 8월 2일은 8월에 해당하지만 7월의 기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날짜로 7월은 7월1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7월의 立秋 후로부터 8월의 白露 전까지를 7월의 기운으로 보았다. 한 해 또한 마찬가지인데, 올해의 동지가 지나면 운기상으로 내년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뒤에 建除十二神과 瘫瘡日 부분의 기사에서도 언급되겠지만, 建除十二神을 따

질 때나 瘫瘡日을 따질 경우에 날짜로 몇 월이냐 보다 해당 달의 절기가 지났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 추산하였다.

이러 이유 때문인지, 기사를 보면 절기에 대한 금기가 의서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서에서는 절기에 들어선 다음날을 忌日로 보았을 뿐이지만, 기사에서는 節氣에 해당하는 入節日과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모두를 忌日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현종 원년, 현종 3년) 이는 의서의 내용이 실제로는 변형되어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人神를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

鍼灸擇日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人神의 소재를 추산하여 금기로 삼는 방법이다. 인체에 머물러 있는 人神(혹은 太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여 일정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때 人神이 머물러 있는 곳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정해진 날짜만을 가지고 금기를 따지는 방법보다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추산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東醫寶鑑』에 와서는 鍼灸擇日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립되었다.

『東醫寶鑑』에 설명된 人神所在擇日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太乙遊八節日數에 의한 방법과 逐日人神所在에 의한 방법이다. 설명을 위해 전자를 太乙遊八節日數法, 후자를 逐日人神所在法이라고 지칭하도록 하자.

太乙遊八節日數法에 의한 방법은 『鍼灸擇日編集』에서부터 언급되어 오던 방법으로 절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9일을 단위로 人神이 左脚足, 左脇, 左肩臂, 右脚足, 右脇, 右肩臂, 頭首喉膺, 腰尻下竅, 臟腑膈下의 아홉 부위를 돌아가며 머문다고 보았다. 이는 八卦와 中央의 九數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념 자체는 단순하지만, 太乙이 머무는 순서가 절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때문에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모두 비교적 많은 분량의 표를 할애하여 설명하였다. 太乙이 머무는 부위에는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逐日人神所在法은 이와는 달리 30일을 단위로 인체 각 부위의 人神이 흘러다니는 부위를 나열한 것으로 『神應經』을 출전으로 하고 있다. 一日에 足大指厥陰分을 시작으로 二日

날짜	부위	陰陽	날짜	부위	陰陽	날짜	부위	陰陽	날짜	부위	陰陽	날짜	부위	陰陽
1	足大指	厥陰分	2	足外踝	少陽分	3	尻內	少陰分	4	腰	太陽分	5	口舌	太陰分
6	手	陽明分	7	足內踝	少陰分	8	手腕	太陽分	9	尻	厥陰分	10	腰背	太陰分
11	鼻柱	陽明分	12	髮際	少陽分	13	牙齒	少陰分	14	胃脘	陽明分	15	遍身	鍼灸大忌
16	胸乳	太陰分	17	氣衝	陽明分	18	尻內	少陰分	19	足趺	陽明分	20	足內踝	少陰分
21	手小指	太陽分	22	外踝	少陽分	23	肝臟	厥陰分	24	手	陽明分	25	足	陽明分
26	胸	太陰分	27	膝	陽明分	28	陰	少陰分	29	膝脛	厥陰分	30	足趺	陽明分

<Table 1> Depending on the date of the soul a place to stay method (逐日人神所在法)

에 足外踝少陽分, 三日에 尻內少陰分 순으로 이행되고 二十九日 膝脛厥陰分, 三十日 足趺陽明分으로 끝나게 된다. 이 방법은 특정한 규칙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몸의 구체적인 부위뿐만 아니라 三陰三陽까지 포괄하고 있어 경락을 기준으로 활용되는 침구치료에 폭넓게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15일은 人神이 全身에 머무르는 때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금해야 한다. 逐日人神所在法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같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기사 및 분석

- 인조 20년 6월 10일 (무신) "則今日腰脊, 以日遊神禁忌, 不得下針"
- 효종 9년 9월 26일 (경신) "而但秋分後三十日, 太乙在頭部, 此爲拘忌, 不可行灸"
- 현종 3년 8월 6일 (병오) "明日則忌在左脚足, 決不可始爲受鍼云"
- 현종 4년 10월 12일 (병오) "十五日, 人神拘忌, 可以少止"
- 현종 5년 3월 25일 (정해) "今日人神在於陽明經, 而三里穴屬於此經, 醫家大忌, 決不可受灸。"
- 현종 5년 5월 15일 (병자) "而今日乃人神遍身日, 鍼家最爲拘忌, 明日則雖望日, 乃是鍼灸吉日云"
- 영조 13년 4월 23일 (신사) "此是手陽明經分野, 最忌人神所在處, 明日則不宜受灸"
- 영조 23년 8월 20일 (무인) "但此日合谷人神所在, 不宜鍼灸耳。"

2) 通氣之日

- 효종 9년 11월 14일 (정미) "右邊足指間, 當爲通氣之日, 則今十七日爲吉云"

3) 소결

이상의 기사를 통해 人神을 기준으로한 鍼灸擇日法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太乙遊八節日數法과 逐日人神所在法이 두루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금기로 여겨졌다. 날씨나 달 모양과 관련된 拘忌들은 때때로 가볍게 여겨지거나 무시되기도 하였는데, 人神과 관련된 拘忌에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逐日人神所在法의 15일은 人神이 온 몸에 머무르는 때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今日乃人神遍身日, 鍼家最爲拘忌, 明日則雖望日)

둘째, 침구치료를 拘忌에 맞게 변화시켰다. 다른 금기들은 하루 전체의 치료를 멈추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太乙遊八節日數法과 逐日人神所在法의 경우에는 인체의 국소부위만을 금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부위가 受鍼處 혹은 受灸處가 아니라면 拘忌로 작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를 빼거나 다른 부위로 대체하여 시술하는 것이 가능했다.

인조 20년의 경우 腰背部에 수침하고 있었던 것을 中脘으로 옮겼고, 영조 23년에도 大王大妃의 치료혈로 合谷, 太衝, 三里, 章逐, 神門 다섯 혈이 정해 졌으나, 시술이 예정된 24일이 逐日人神所在法에 의거해 人神이 手 陽明分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合谷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셋째, 의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通氣之日'의 개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通氣之日은 그 부위의 기운의 소통이 특별히 왕성하여 치료시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人神에 따른 拘忌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효종 9년에 효종은 오른쪽 발가락의 통증을 앓고 있었는데, 오른쪽 발가락의 通氣之日이 11월 17일(庚戌)이기 때문에 이 때가 吉日이 되어 치료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5. 建除十二神을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

建除十二神은 길흉 일을 맡은 열두 신으로서 建, 除, 滿, 平, 定, 執, 破, 危, 成, 收, 開, 閉를 가리킨다. 이들은 고대 천문학에서 기인한 개념으로, 절기로 추산하는 節月曆과 북두칠성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 날의 神을 정하고, 이를 통해 吉凶禍福이 결정된다. 보통 除, 危, 定, 執, 成, 開는 吉한 神에, 建, 滿, 平, 破, 收, 閉는 凶한 神에 속한다.⁸⁾

建除十二神은 歷家에게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의학에서는 鍼灸擇日法에만 등장한다. 이 가운데 『鍼灸擇日編集』의 설명이 비교적 자세한데, 千金方十二部人神忌, 千金方鍼灸忌

		의학적 吉凶	역술적 吉凶
除日	吉	여자의 치료	安宅, 出行, 上狀, 祭祀, 立勝, 療病, 極木, 種禾
	凶	남자의 치료	求官, 出財, 移徙
破日	吉	남자의 치료	治病, 破屋, 壞垣
	凶	여자의 치료	斬草, 破土, 興工, 動土, 安葬, 移徙, 出行, 進入口, 嫁娶
滿日	吉	-	祭祀, 掃舍, 納奴, 極木, 裁衣
	凶	모두의 치료	動土, 立柱, 移徙, 求福
開日	吉	모두의 치료	祭祀, 葬埋, 立勝, 接花, 作廁
	凶	-	出行, 移徙, 還家, 遠回, 修造, 動土

<Table 2> The original concept of Zhe-day(除日), Pa-day(破日), Man-day(滿日), Ke-day(開日)

日, 龍樹菩薩眼論醫眼禁忌日 세 편에 보인다. 「千金方十二部人神忌」에서는 建除十二神의 해당 날에 특정한 시각 특정한 부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建日申時頭, 除日酉時膝, 滿日戌時腹, 平日亥時腰背, 定日子時心, 執日丑時手, 破日寅時口, 危日卯時鼻, 成日辰時唇, 收日巳時足, 開日午時耳, 閉日未時目이다. 「千金方鍼灸忌日」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고 남자의 경우 除日을, 여자의 경우 破日을 금기 있는 날(男忌除 女忌破)로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東醫寶鑑』과 『鍼灸經驗方』에 동일하게 수용되었다. 「龍樹菩薩眼論 醫眼禁忌日」에는 “建定禁晡時 除禁日入 滿禁黃昏 平禁人定 定禁夜半 執禁鷄鳴 破禁平朝 危禁日出 成禁食時 收禁禹中 開禁日中 閉禁日昧”와 같이 建除十二神에 치료에 있어서 피해야 할 시간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東醫寶鑑』 鍼灸忌日에는 “男忌除日及戊日 女忌破日及己日 男女俱忌滿日”라고 하여 남자의 경우 除日을, 여자의 경우 破日을 금기로 삼고 남녀 모두 滿日을 꺼려야 한다고 하여 『鍼灸擇日編集』에서 滿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鍼灸吉日에서는 “男喜破日 女喜除日 男女俱宜開日”라고 하여 남자는 破日을, 여자는 除日을, 남녀 모두는 開日을 치료의 吉日로 꼽았다. 남자의忌日이 여자의 吉日이 되고, 여자의忌日이 남자의 吉日이 된다는 것이다. 『鍼灸經驗方』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鍼灸忌日에서 “男忌 除戊 女忌 破巳”라고 하였다.

鍼灸擇日에서 관건이 되는 除日, 破日, 滿日, 開日에 대한曆術의인 개념을 참고해 정리해 보면 <Table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⁸⁾

建除十二神을 이용한 鍼灸擇日法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기사 및 분석

- 인조 4년 9월 18일 (정해) “二十日滿日, 男女俱忌, 俱是針家所忌, 皆難施針”
- 현종 4년 8월 2일 (정유) “明日戊滿之忌, 較他差輕”
- 현종 4년 10월 5일 (기해) “今日非但已暮, 且有除字之忌, 明日乃瘟瘡日, 再明日爲可云”
- 현종 8년 3월 7일 (신사) “今日, 乃是滿日, 鍼家所拘忌, 明日爲吉云”

2) 소결

기사분석을 통해 建除十二神을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法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建除十二神의 특성상 절기와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기사 내용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建除十二神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절기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절기를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法’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鍼灸擇日法과 관련된 建除十二神은 除日, 破日, 滿日, 開日이며, 이 가운데 滿日과 除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는 內醫院 진료가 王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와 관련된 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建除十二神을 기준으로 한 鍼灸擇日法은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종 4년 8월 기사에서는 藥房에서 “금기가 비교적 가볍다”(明日戊滿之忌, 較他差輕)고 한 바 있으며, 瘟瘡日과 비교했을 때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忌日을 비교적 잘 지켰던 현종 역시 현종 8년 기사에서 滿日을 피하지 않았다.

6. 瘟瘡日을 기준으로 한忌日

瘟瘡日 역시 歷家에서 기인한 개념으로, 『鍼灸擇日編集』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후 『東醫寶鑑』에서는 每月諸神直

월	기준일	瘟黃日	기사 위치	비고
正月	未	1월24일(癸未)	숙종 32년 1월 25일 (갑신)	
二月	戌	1월27일(戊戌)	현종 14년 1월 27일 (무술)	절기
		2월11일(丙戌)	숙종 29년 2월 11일 (병술)	
		2월29일(甲戌)	현종 8년 2월 29일 (갑술)	
		3월4일(壬辰)	영조 13년 3월 3일 (신묘)	
三月	辰	3월18일(庚辰)	현종 5년 3월 18일 (경진)	
		4월2일(庚辰)	숙종 44년 4월 1일 (기묘)	절기
		3월 25일(丙寅)	숙종 40년 3월 25일 (병인)	절기
		4월2일(甲寅)	숙종 38년 4월 2일 (갑인)	
四月	寅	4월10일(丙寅)	현종 6년 4월 10일 (병인)	
		4월 10일(戊寅)	현종 9년 4월 10일 (무인)	
		4월15일(甲寅)	현종 14년 4월 15일 (갑인)	
		5월13일(甲午)	인조 23년 5월 12일 (계사)	
五月	午	5월21일(壬午)	현종 5년 5월 21일 (임오)	
		5월22일(庚午)	현종 2년 5월 22일 (경오)	
		6월19일(丁巳)	인조 20년 6월 19일 (정사)	
		7월4일(辛巳)	경종 3년 7월 4일 (신사)	절기
六月	巳	7월6일(乙酉)	현종 7년 7월 6일 (을유)	
		7월20일(己酉)	현종 5년 7월 19일 (무신)	
		7월23일(乙酉)	현종 15년 7월 23일 (을유)	
		7월24일(己酉)	인조 22년 7월 23일 (무신)	
七月	酉	8월2일(丁酉)	현종 4년 8월 2일 (정유)	절기
		7월29일(庚申)	인조 21년 7월 28일 (기미)	
		7월30일(壬申)	현종 8년 7월 30일 (임신)	
		8월13일(壬申)	현종 5년 8월 13일 (임신)	절기
八月	申	9월 18일(丁亥)	인조 4년 9월 18일 (정해)	
		9월27일(己亥)	현종 13년 9월 25일 (정유)	
		10월5일(己亥)	현종 4년 10월 5일 (기해)	절기
		9월 19일(戊子)	인조 4년 9월 18일 (정해)	절기
九月	亥	10월11일(丙子)	현종 9년 10월 11일 (병자)	
		10월18일(壬子)	현종 4년 10월 15일 (기유)	
十一月	丑	(관련 기사 없음)		
十二月	卯	(관련 기사 없음)		

<Table 3> Record of OnHuangll(瘟黃日) taboo in Seunjeongwon-llgi(承政院日記)

日避忌傍通圖에서 표로 제시하였는데, 正月부터 十二月까지 未, 戌, 辰, 寅, 午, 巳, 酉, 申, 亥, 子, 丑, 卯의 순서이다. 『鍼灸經驗方』에서는 도표로 표시하지 않고 따로 가부로 만들었는데(瘟瘡 正羊二戌三居辰 四寅五午六蛇行 七酉八候九在亥 十子十一丑中存 十二月當居卯位 犯着瘟瘡必殺人), 임상에서 기억하기 편하도록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는 임상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었기에 늘 외우고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承政院日記』의 기사에서도 瘴瘡日은 매우 중요하게 지켜졌다. 온황일에 대한 기사는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월에 따라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3>

1) 소결

瘟黃에 대한 기사는 매우 많은 편이다. 이 기사들은 拘忌

의 원인을 확실히 밝힌 것들만을 취한 것이지만,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 많은 기사들에서 날짜를 추정한 결과 瘴瘡日에 해당하는 拘忌들이 매우 많았다.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 瘴瘡日은 가장 중요한 鍼灸擇日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기사에서는 특히 瘴瘡日을 추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이는 의서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瘴瘡日 추산에서는 월의 변화 보다는 절기의 변화가 중요하였다. 현종 14년 1월 27일 기사에서 1월27일(戊戌)이 2월 瘴瘡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2월의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二月節已過, 當爲瘟瘡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절기로 인해 다음 달의 瘴瘡日로 추산된 경우는 인조21년 7월28일 (기미), 숙종40년 3월25일(병인), 현종9년 10월11일(병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반대로 숙종44년 4월1일(기묘), 현종4년 8월 2일(정유)의 경우에는 각각 3월, 7월의 瘴瘡日로 앞당겨 추

산되었다.

다만 절기를 기준으로 한 추산방법은 당시의 관습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현종8년 7월30일(임신)의 기사를 보면, 7월30일(壬申)은 7월에는 瘫瘍이 아니지만 8월로 따지면 瘫瘍日이 됨을 염려하였는데, 현종은 아직 7월이 다 가지 않았으니 구애될 바 없다고 대답한다. (藥房再啓曰 …… 但今日, 卽申日, 在此月則別無拘忌, 而以八月若論之, 則是爲瘫瘍日云, 何以爲之? 敢稟. 答曰, 七月未盡, 何用拘忌)

또 경종3년 7월4일(신사) 기사에서 台佐는 “침가에서 온 황일을 수침의 금기로 여기고 있사온데 6월에는 巳日 7월에는 西日이 瘫瘍日 이옵니다. 오늘은 巳日이나 7월 절기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혹, 7월 절기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6월과 유사한 것이니 수침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 비록 절기에 아직 들어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7월이기 때문에 수침 하여도 무방하다고도 말합니다.” (鍼家, 以瘫瘍日受鍼爲忌, 而六月巳日, 七月酉日, 乃瘫瘍日也. 今日乃巳日, 而七月節未入, 或以爲七月節未入, 則猶是六月, 不可受鍼云. 或以爲節雖未入, 既是七月, 則受鍼無妨云矣)라고 하여 이러한 혼란을 설명하였다.

한편, 瘫瘍日을 부득이하게 범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종14년 4월15일(갑인) 기사에서, 4월15일(갑인)은 瘫瘍로 鍼灸家大忌의 날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하자 현종은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밤이 되면 더욱 극렬해 질 것을 염려하면서 拘忌를 모두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의관인 東馨은 寅日인 瘫瘍日에 혹 寅時를 삼가는 경우가 있으나 오늘은 寅時마저 이미 지났다고 언급하였다.(東馨曰, 瘫瘍日, 或有寅時之忌, 而今則寅時已過矣) 현종 15년 3월 4일(무진) 기사에도 같은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東醫寶鑑』에서는 “침구에서 반드시 인신, 고신, 혈지, 혈기, 온황의 부류를 꺼리는데, 급한 병의 경우 하루 중에 한 시간을 꺼린다.” (凡鍼灸 必忌人神·尻神·血支·血忌·瘫瘍之類. 急病則一日上忌一時)고 하였다.

7. 여러 가지 침구 吉日

『承政院日記』에서 吉日에 대한 표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왕을 치료함에 있어서 忌日을 피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吉日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들 기사에서는 拘忌에서와 같은 명확한 이유를 들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고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의서에서는 주로 干支日을 통해 吉日을 표시하였는데, 『東醫寶鑑』의 경우를 보면, 甲戌, 甲申, 甲寅, 乙巳, 乙卯, 乙丑, 乙亥, 丙子, 丙申, 丙午, 丙戌, 丁卯, 丁亥, 丁丑, 戊戌, 戊申, 己亥, 庚午, 庚子, 庚戌, 庚申, 辛卯, 辛丑, 辛, 壬午, 壬子, 壬戌, 壬申, 癸丑, 癸未를 들고 있다. 『鍼灸擇日編集』과 『鍼灸經驗方』도 이와 유사하다. 또 남자의 경우 破日, 여자의 경우 除日, 남녀 모두 開日이 좋다고 하여 建除十二神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다.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極吉

- ▶ 경종 3년 3월 16일 (을미) : 3월17일 丙申 (干支日에 따른 吉日)
- ▶ 영조 23년 8월 2일 (경신) : 3월7일 乙丑, 3월12일 庚午 (모두 干支日에 따른 吉日)

2) 最吉

- ▶ 현종 5년 8월 13일 (임신) : 8월17일 丙子 (干支日에 따른 吉日)
- ▶ 현종 원년 9월 15일 (정묘) : 9월18일 庚午 (干支日에 따른 吉日)
- ▶ 현종 3년 7월 21일 (임진) : 8월3일 癸卯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현종 4년 1월 20일 (기축) : 1월 25일 癸巳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현종 5년 8월 13일 (임신) : 8월 17일 丙子 (干支日에 따른 吉日)
- ▶ 현종 10년 1월 23일 (정사) : 1월 24일 戊午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숙종 29년 1월 24일 (경오) : 2월 12일 丁亥 (干支日에 따른 吉日)
- ▶ 숙종 36년 10월 14일 (을해) : 10월 20일 辛巳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숙종 43년 8월 2일 (계미) : 8월 7일 戊子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숙종 44년 1월 25일 (갑술) : 2월 8일 丁亥 (干支日에 따른 吉日)

3) 平吉

- ▶ 인조 4년 9월 18일 (정해) : 9월 21일 庚寅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9월 22일 辛卯 (干支日에 따른 吉日)
- ▶ 현종 4년 1월 20일 (기축) : 1월 22일 庚寅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현종 5년 8월 13일 (임신) : 8월 14일 癸酉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 영조 23년 8월 2일 (경신) : 9월3일 己丑 (이유가 분명하지 않음)

▶ 영조 23년 8월 12일 (경오) : 8월 12일 庚午 (干支日에 따른
吉日)

4) 소결

이상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당시 왕실에서 鍼灸吉日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사에서 길일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인 ‘吉’ 이외에 ‘平吉’, ‘最吉’, ‘極吉’ 이 사용되었으며, 드물게 ‘大吉’,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吉日 가운데 우열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자적인 의미와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平吉, 最吉, 極吉로 갈수록 더 좋은 날로 인식되었다.

다음으로 吉日의 추산에 대하여 의서에서는 주로 干支日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기사와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의서에는 吉日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어떤 날이 平吉이고 어떤 날이 最吉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曆法에 의한 다른 기준에 의해 계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실제 조선 왕실에서 鍼灸擇日을 침구치료의 중요한 단계로 여기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鍼灸擇日이 갖는 활용법과 의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실 진료에서 鍼灸擇日이 침구치료의 일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의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의 내용이 『鍼灸擇日編集』, 『東醫寶鑑』, 『鍼灸經驗方』 등 의서에 나오는 鍼灸擇日의 내용과 합치되기 때문이다. 다만, 月을 구분할 때 날짜가 아닌 節氣를 기준으로 추산하는 방법은 의서에 보이지 않는 방법이다.

둘째,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침구택일법은 忌日과 吉日로 나눌 수 있다. 忌日은 다시 날씨, 달의 모양, 節氣, 人神, 建除十二神, 瘫瘍日을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吉日의 경우 의서에 나타난 干支를 기준으로 한 방법 외에 曆法을 활용한 방법도 함께 사용되었다.

셋째, 택일법에는 경증의 차이가 있었다. 의서에는 鍼灸擇日法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상호간에 모순이 일어났을 때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우선 瘫瘍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또 날씨나 달 모양과 관련한 금기는 비교적 가볍게 여겨졌으며, 때때로 忌日들이 범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넷째, 鍼灸擇日法은 침구시술의 간격을 조절해 주는 기능을 하였다. 임금의 병이 진행 중일 때에는 매일 受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침구시술이 환자의 기운을 소모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신하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왕은 계속 시술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忌日은 치료를 잠시 쉬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왕에게 행해졌던 침구시술은 의료적인 차원 이전에 왕실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조선시대의 왕은 한 나라의 수장이자 어버이요 중심이었다. 일반 여염에서도 대소사가 있을 때 좋은 날을 골랐던 만큼, 임금과 관련된 대소사는 날을 받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서 鍼灸擇日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분류하고 분석하였으나, 왕실의 의례로서 擇日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1)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서울:집문당, 1997:219-249.
- 2) 정만조 외, 『承政院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국사편찬위원회』, 2003:4
- 3) 홍세영, 『承政院日記의 臨床醫學 記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9:44-57
- 4) 백두현, 『한글 편지에 나타난 ‘날받이’(擇日)이야기』, 『선비 문화』, 2006:10:66-74
- 5) 全循義 金義孫, 『鍼灸擇日編集』, 北京:中國書店, 1987.
- 6) 許浚,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1991.
- 7) 許任, 『鍼灸經驗方』, 행림서원, 1943.
- 8) 고광진, 택일대요, 서울:명문당, 2004:39-42